

매튜 S. 하몬 박사, 성경의 활용, 제2강, 문맥과 텍스트 네트워크의 가치 (

BiblicaleLearning.org 후원, 테드 힐데브란트 진행)

,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성경을 성경에 적용하는 방법'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문맥과 텍스트 네트워크의 가치'입니다. '

성경을 성경에 적용하는 방법' 강좌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맥과 텍스트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성경 연구 방법: 성경 활용』에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특히 4장, 즉 수평적 문맥과 수직적 문맥에 관한 장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 맥락과 수직적 맥락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수평적 맥락이란 해당 구절을 둘러싼 구절, 단락, 장, 책, 심지어는 정경적 부분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절이 주변의 단락, 장, 책 등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또 다른 종류의 맥락은 수직적 맥락 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평적 맥락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구속사 안에서 여러 본문을 연결하거나 묶어주는 암시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즉, 성경 저자들이 다른 본문들을 암시하면서 의미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마치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눈덩이를 옆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언덕을 따라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은 눈을 머금고 커집니다. 앞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수평적 맥락, 수직적 맥락 말이죠.

수직적 맥락과 수평적 맥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기본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A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텍스트 A는 텍스트 B를 암시하는데, 텍스트 B 안에는 이미 텍스트 C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또한 텍스트 A가 텍스트 B를 암시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C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시면, 이것들이 바로 주변의 문학적 맥락입니다. 즉, 각 텍스트 주변의 구절, 단락, 그리고 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수직적 맥락이 수평적 맥락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텍스트 A가 텍스트 B와 상호작용할 때, 단순히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바로 그 구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수평적 맥락 또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반부 에서 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간단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만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텍스트 Y가 텍스트 A를 참조하고, 텍스트 A는 또 그 이전의 두 텍스트인 텍스트 B와 텍스트 C를 참조하는 식으로 서로 연결된 텍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C는 텍스트 Y와 텍스트 A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텍스트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내용을 띄워 놓겠지만,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도 결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 와 결혼 하지 말라 . 결혼하면 너희 마음이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사랑으로 택하였다.

솔로몬에게는 공주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신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수평적, 수직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인 맥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의 몰락을 다룬 10장 26절부터 11장 43절까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는 솔로몬과 그의 통치에 초점을 맞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라고 부르는 훨씬 더 큰 단위의 일부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열왕기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상하 등에서 제시되는 더 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변 장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우르는 수평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에 대한 이 묘사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의 다른 세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주변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출애굽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연결고리는 열왕기상 11장이 아마도 인용했을 신명기 17장인데, 이 구절은 왕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 하나는 왕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신명기 23장 3절과 아마도 23장 7절에 나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여호와의 회중 에 들어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압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하셨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러한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솔로몬의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그가 마땅히 알아야 했고 , 실제로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위쪽의 연한 회색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도 솔로몬처럼 암몬, 모압, 아스돗 여인들 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

그래서 후대의 문헌이 여기서 이루어진 내용을 이어받고 있고, 심지어 그 후대의 문헌조차도 신명기 23장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축적되고 연결되어 마치 네트워크나 연합체, 즉 문헌들의 그물망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문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이 설명이 여러분을 낙담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마가복음 1장을 펴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맨 처음 부분인 1장에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 구절을 전에 읽어보셨거나,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셨다면, 처음에는 "잠깐, 마가가 뭔가 잘못 쓴 건가?"라고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절 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대로"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 그가 하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2절에서 먼저 하는 말,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네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수직적인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시작해 보면,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모두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이 이미 이사야 40장을 인용하고 있고, 이사야 40장에는 이미 출애굽기 23장 21절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구절 간의 연결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네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여러분은 “아, 그건 말라키 3장 1절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말라키 3장 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네 앞에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사야 40장을 보면 말라키가 이사야서의 표현을 차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아니 사막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라키 3장에 이미 이사야 40장 3절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이 두 본문을 결합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말라키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말라키는 이미 자신의 말을 이사야 40장과 연결하여 이 사자를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와 연관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사야조차도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의 표현을 차용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길에서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에게 반역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모두에서 이 용어가 인간의 사자 또는 천사를 모두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그 구절에서 의도하는 바의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문맥상 천사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과 말라키 3장을 보면, 인간의 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마가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도표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은 말라키와 이사야서를 모두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미 출애굽기를 인용했고, 말라키의 뒤를 따라 이 두 본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새롭게 주목할 점은 이 본문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수평적인 맥락에서 추가적인 연결 고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사야 40장 9절을 보시면, 칠십인역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사 euangelizo 는 명사 euangelion 과 관련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복음서의 표현은 이사야서의 더 넓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 예루살렘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힘차게 외쳐라 .”

그것을 들어 올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지다 하라.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서의 표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9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같은 맥락이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말라기 후반부에 누가 언급됩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십시오. 물론 마가복음 1장 6절에서는 엘리야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옷차림과 식습관, 그리고 묘사 방식을 보면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된 여러 본문들이 만들어내는 수평적 맥락의 한 예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개념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네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즉, 이 사자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준비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로 이어지는 세 본문의 수직적 연결, 즉 이러한 연결 고리가 어떻게 구약 본문의 수평적 맥락과 추가적인 연결 고리를 활성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저자가 구약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후대의 구약 저자가 초기 구약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할 때, 사용된 특정 구절들을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 맥락 안에서 추가적인 연결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후대의 성경 저자가 단순히 한 구절만 골라내어 자신의 글에 옮겨 적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당 부분 텍스트적, 문맥적 연관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가져온 한 예입니다. 문맥에 대한 논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우리가 텍스트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지 마세요. 이 화면에서 보게 될 내용이 다소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다윗 언약 네트워크의 단면입니다. 다윗 언약을 생각할 때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도표는 그 구절이 후대의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암시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다른 후대 성경 본문들이 다윗 언약을 어떻게 다루고 반영하는지, 어떻게 확장하는지, 그리고 다른 성경적 사상 및 주제와 연결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다윗과의 언약에 앞서 몇 가지 전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사무엘하 7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예고하고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사람의 막대기로, 사람의 아들들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사랑을 거두어 너 앞에서 내쫓은 것처럼 나의 변함없는 사랑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에 대한 약속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왕조의 일원이 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왕조에서 나와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한 개인 왕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네트워크는 그 약속, 그 언어가 성경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어떻게 다시 등장하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창세기 49장을 언급했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족장 야곱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조공이 그에게 올 때까지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니라.”

물론 우리는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기억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의 성경 본문에서 그 약속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며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 편 6 절에서 8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시편 2편 6-8절로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과 창세기 49장이 시편 2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 6-8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10절의 영향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순종 에 대한 내용 , 즉 “내가 모든 민족을 네 기업으로 삼고 땅 끝까지 네 소유로 하리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사무엘하 7장에서 직접 차용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미래의 왕에 대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은 창세기 49장과 사무엘하 7장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시편 후반부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시편 89편 20절과 21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 내 종 다윗에게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으니 , 이는 내 손이 그와 함께하며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하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할 것이다. 이제 27절을 보라. 내가 그를 만아들로, 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삼을 것이다.

신약성경에 이르러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약속과 연결된 기대와 희망, 약속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아들됨에 대한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 도표 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너무나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부 적인 내용에 파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게리 슈니트저의 유익한 저서, 『구약 성경의 활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텍스트 네트워크들을 전체적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의미의 축적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 후대의 성경 저자가 시편 2편의 표현을 차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잠시 시편 2편을 살펴보면, 성경 저자가 바로 이 시편에서 내용을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 창세기 49장의 기대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이해했던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문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모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스스로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편 89편을 접했을 때 이런 표현을 보게 된다면, 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신약성경에 여러 번 인용되는 시편 110편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0편의 진정한 의미 를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7장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연결된 다른 약속들의 맥락 속에서 살펴 봐야 합니다 .

자, 이제 잠시 멈추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주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맥락과 수직적 맥락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전 구절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발견하면, 그 구절을 중심으로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추가적인 접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증자 텍스트라고 부르는, 인용되거나 암시되는 원문과, 수용자 텍스트, 즉 그 원문이 활용되는 부분 사이의 접점 말입니다.

둘째, 수직적 맥락을 통해 의미가 축적되는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해, 이러한 텍스트들의 네트워크, 즉 서로 연결된 텍스트들의 웹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바의 본질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텍스트 네트워크에 주목하십시오. 제가 게리 슈니커의 저서 『구약의 사용』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에는 12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다양한 텍스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텍스트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숙고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연상과 의미의 연결망이 점점 더 깊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후대 성경 저자들이 이 텍스트들을 참조 하도록 인도하신 방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즉,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평적 맥락과 수직적 맥락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수직적 맥락에서 비롯되는 의미의 축적에도 주목하세요.

때때로 논란이 되는 주제인 유형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유형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튜 S. 하몬 박사가 '성경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 시리즈 강의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세션은 두 번째 시간인 '맥락과 텍스트 네트워크의 가치'입니다.